



김 규 현 경희대학교

## ‘방송 기술 개발 30년의 마일스톤 기술 소개’ 특집호를 내며

이번 특집호에서는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국 방송 기술 발전을 돌이켜 보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방송 기술 개발과 논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해 왔으며, 이를 통해 방송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국내 방송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세계 최초로 이동방송을 실현한 지상파 DMB 기술을 국내 기술로 표준화하고, 관련 방송 장비와 단말을 개발하여 세계 방송 기술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실감형 미디어의 대표적 사례인 3DTV 기술과 초고화질 지상파 UHD 방송 기술 개발에도 성공하며, 한국 방송 기술은 2000년대 이후 세계 방송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오를 만큼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디어 소비 방식이 전통적인 방송에서 통신망을 통한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방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집호에서는 디지털 방송, 지상파 DMB, 3DTV, 지상파 UHD 방송 등 주요 방송 기술의 개발 과정과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고,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집호를 통해 방송 기술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에 그동안 소중한 논문을 기고해 주신 저자들, 그리고 다양한 워크숍에서 새로운 방송 기술을 소개해 주신 연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가 현재 방송이 마주한 도전을 발전의 기회로 삼고, 의미 있는 논문과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세계 방송 기술을 선도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집호의 기고문 작성에 오래된 자료와 기억을 다시 꺼내 검토해 주시고, 방송 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박재홍 전 학회장님, SBS 조삼모 박사님, KBS 김병선 부장님, KETI 김제우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